

#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유심문학토크는 박형준 시인을 초대해 시인의 시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유심 문학토크 박형준 시인 초대

질주하는 이들에게 한번쯤 쉬어갈 의자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시가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시월간지 '유심'의 유심 문학토크가 1월 22일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달의 초대 손님은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시인'으로 알려진 박형준 시인이다. 김지녀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학토크에서는 기억 속에서 소재를 끌어내고 있는 박 시인의 시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출세를 하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소년은 검사나 판사가 되는 꿈을 꾸고있었지만, 하지만 도시 번두리에서 살며 사람들의 삶을 엿보던 소년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 저편으로 가라앉은 기억의 조각들은 시가 되었고 그는 '시인'이 되었다.

박 씨의 시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기억 그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고향 등에 대한 소재가 많다. 이런 서정적 내용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지만 시인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초현실주의자도 리얼리스트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의 시를 평가한다.

그는 "내 안에서 초현실주의의 리얼리즘이든 어느 한쪽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카프카의 (변신)은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삶이 그대로 설득력을 갖지 않나? 그렇게 극단으로 밀고 나가고 싶지만 자꾸 연민으로 빠져게 된다. 하지만 결국 기억과 상상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하면 상상력에 기대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 "나의 시는 골동품 같은 곡선 느낌은 빠름을 인식하게 해"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 오래된 듯한 시인의 시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준다. 이 시대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저도 새 것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요. 무궁화 열차가 있어야지 KTX가 주는 편리함을 알듯이 느린 것은 빠름을 인식해 주는 역할을 하죠. 저의 시는 골동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행위에 곡선을 주는 것,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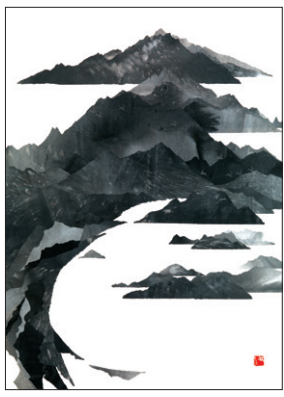
## 설박 개인전 어떤 풍경展

### 송은아트큐브...2월 26일까지

설박 작가의 개인전 '어떤 풍경'이 2월 26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송은아트큐브에서 열린다.

그녀의 작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화선지에 먹을 묻혀 종이로 찍어낸 풀라주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설박 작가는 "좀 더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사용한 기법이다. 화선지를 겹겹이 찢어 먹을 묻혀 찍어내면 다양하게 변하는 효과가 있다. 세밀한 부분은 압축 목판으로 정리를 해 작업한다"고 설명한다.



설박 작 '어떤 풍경'

들러 참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전했다. (02)3448-0100 정혜숙 기자

작가는 미황사 등 사찰 여행을 통해 많은 위안을 얻었고 한다. 설박 작가는 "아직은 막연하지만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절에 들러 참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전했다. (02)3448-0100 정혜숙 기자

##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화생(蓮花化生)-만병화생(滿瓶化生)

#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한다

꽃병을 만병이라는 용어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만병에서 변형된 꽃(영화시킨 꽃) 같은 것이나 현실에서 보는 꽃이 나오므로 사람들은 만병에서 꽃 같은 것만 나오는지 잘 알 것이다. 만병에서는 꽃, 즉 통틀어 영기꽃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병에서는 용이나 여래나 여러 가지 영기꽃들, 더 나아가 만물이 생겨난다. 여태껏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향아리에서 여래가 나온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경전, 즉 (법화경)에 '蓮花化生' 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량수경)에는 '蓮花化生' 이란 말과 함께 '自然化生' 이란 말이 나온다. 이 '자연화생' 이 기막힌 말인데 사람들은 그리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화화생' 이란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은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화화생에 관하여도 진지하게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 다양한 영기화생의 도상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랴! 연꽃에서 여래나 보살이 나타나는 것을, '탄생'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화생(化生)' 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화생이란 용어를 분명히 파악하려면 간단하지 않다. 단지 '홀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화생이라 한다' 고만 흔히 말하고 있으니 화생의 참뜻을 알 수 없다. 매우 어렵지만, 화생이란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보기로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생명의 탄생방법을 불경(佛經)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등이다. 그런데 화생은 나머지와는 달리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홀연히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여래나 보살, 여신(女神) 등 신성한 존재가 탄생하는 경우에만 화생이란 말을 쓴다. 바로 연꽃에서 탄생하는 것을 '연화화생' 이라 부른다. 그런데 연꽃에서 무엇이 어떻게 탄생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연꽃에 갖가지 영기꽃을 부여하여 영화시킨 다음에야 여래나 보살이나 신(神)들이 화생하는 것이다. 그 세계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세계이며 영적(靈的)인 세계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은 후에 아마티어래나 관음보살의 도움을 받아 아마티 서방세계의 연꽃에서 연꽃을 통하여 부처님 앞에서 '연화화생' 한다고 말할 데서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누구나 쓰고 있지만,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탄생한다는 말은 어느 경전에서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형미술에서는

반드시 연꽃 형태에 갖가지 영기꽃을 부여하며 영화된 연꽃, 즉 영기꽃에서 고귀한 존재가 화생하는 도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그러므로 바로 이 경전에 나오는 '연화화생' 이란 말 때문에 연꽃이 영화된 까닭도 알 수 없었고, 그 밖에 '무한히 다양하게 전개하는 화생하는 방법' 을 나타낸 도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경전의 용어가 화생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조각이나 회화에서는 여래나 보살 등은 반드시 연꽃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하는 광경' 이라고 논문에서 써야 한다. 나 자신도 10년 전에는 연화화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몰라 그렇게 써왔었지만 그렇게 쓰면 틀린 말이다.



그림① 중국 금동불



그림② 중국 금동불 대좌 부분



그림③ 만병 채색 분석

그러면 연꽃이란 무엇인가? 연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경전에 수많은 등장하고, 조형미술에도 수많은 등장하고 있으니 연꽃을 보고 불교를 떠올릴 만큼 불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바로 이 고정된 관념이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연꽃만 보이지 다른 꽃은 쳐다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연꽃만이 성스럽고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연꽃뿐만 아니라 모든 꽃은 아름답고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므로, '모든 꽃에서 여래나 보살이 탄생'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무한히 다양한 도상의 창조가 가능하다. 좀 더 꽃의 본질을 설명해보자. 아름다운 색이나 형태의 꽃잎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꽃에는 씨앗이 있다는 것' 이고 '씨방 안에는 무량한 씨앗들이 들어 있다' 는 것이다. 바로 그 씨앗이 생명의 근원이며 이 우주에서는 씨앗(식물)이나 씨알(동물)에 의하여 생명을 영원히 생성하여 지구나 우주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씨앗이나 씨알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생명의 근원' 을 우리는 도(道)라고 부르고 태극(太極)이라 부르고 영기

(靈氣)라고 부르는 것' 이다. 즉 씨앗이나 씨알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도(道), 태극, 영기 등이 생명의 근원이어서 거기에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여래나 보살과 신(神) 등은 도(道)나 태극, 이(理) 등,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무(無)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유(有)를 영기문(靈氣文)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원래 이름이 없거나 자신이 만든 이름이고 용어이므로 여러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용어를 써도 좋다. 그동안 영기문이라고 하는 무량한 조형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지만, 이름도 없고 이름이 있다면 치더라도 틀린 용어가 대부분이다. 즉 '영기-영기문-영기화생' 이라는 '영기화생론' 이라는 사상을 차차 정립하여 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써온 용어들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영기화생' 이란, 영기를 조형화한 영기문에서 여래가 화생하는 것' 을 뜻한다. 무량한 영기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병이며, '만병에서 화생하는 것을 만병화생' 이라고 역시 용어를 새로 만든 것이다. '향아리나 병에서 솟아오르는 영기문 전체 모양을 나는 만병이라 부른다'.

바로 그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하는 조각품을 중국에서 가장 오랜 간다라 양식의 조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간다라 양식을 따른 4세기 초의 금동불로 유명한 초기 중국 불상이다.(그림①) 높이는 33센티. 어깨에서 돌아오는 긴 돌기 같은 것들은 불꽃무늬라고 흔히 말하지만 여래의 몸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다. 선정인(禪定印)을 취한 여래는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지 않고 사자좌(獅子座)에 앉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 박물관' 에서 나는 여러 번 그 작품을 손에 들고 조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좌에 표현된 만병이 물론 눈에 띠지 않았다.(그림②) 나이 70세에 이르러 만병에서 여래가 화생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 만병을 선으로 그려보니 연꽃 같으면서 연꽃이 아닌 영기꽃이 작은 둥근 향아리에서 사방으로 솟아올라 퍼지고 있다. 추상적영기문을 이렇게 구상적인 연꽃처럼 표현하되 자세히 보면 연꽃이 아니다. 인간이 창조한 영기꽃이다. 그 만병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③) 실제 연꽃에서는 아무 것도 탄생하지 않지만, 영화시킨 영기꽃에서는 만물이 화생한다. 연화화생이 아니고 만병화생이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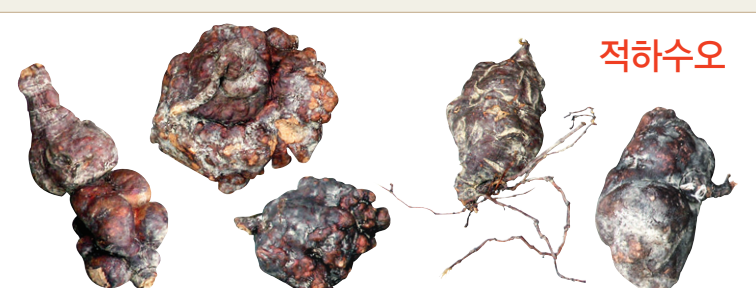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종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목목재배  
계좌번호: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에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 선사》  
박부영·원철·김성우 공저  
신국판·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의식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동불을 밝혀준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o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기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